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중선관위 회의

회차	2차 회의	일자	2021.11.08 18:30	장소	107관 208호(총학생회실)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X	O	O	O	O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계
O	O	O	O	O		9/12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20, 21 새터지원사업으로 플리스 제작 확정.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내일 저녁 7시에 룸미팅 예정.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021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자료집 - 학생자치포럼 관련 제작 중 교육자치 정책 이행 보고 예정 연대사업 농활 유형 테스트 추첨 완료 후 상품 준비 중 일상복지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추첨 완료 전략정책 전임교원 공문 발송 예정	인권복지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 3 논의안건

#### 1. 64대 총학생회 선거 롤미팅 진행

- 예비 선본 등록 후 진행
  - 17시 30분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추천인 명단 대조 검증
  - 이후 현장 진행 (장소 추후 공지)
- 롤미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33조 가항에 의거해서 자격 조건에 어긋나서 거부한 상태임. 거부에 대한 공고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구하겠음. 추천인은 500인 이상 유효여야 함. 500인 이상의 유효 인원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공고 게시 여부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 여쭙겠음.
  - > 등록했다는 공지는 없어서 공지할게 없는 것 같음.
  - > 예비선본이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 >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는데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음.
  - > 추천인에 대한 기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함.
  - > 왜 후보자 등록이 안됐는지 의아해 하실수도?
  - >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공고를 올리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음.
  - > 추천인 명부 작성하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수도 있음.
  - > 서명은 했는데 등록은 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 예비 선본이라는 것은 추천을 받기 위해 만들게 된 것이므로 추천인 링크를 받은 학우분들께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언급이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나 이름이나 추천인 수나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음.
  - > 후보자 등록 요건에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서 미등록으로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서류를 제출한건 사실이니까 미달됐다 정도만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선거무산 공고를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됐다 그래서 무산이다 라고 할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자세하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것 같음.
  - > 33조 나항이 입후보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거부해야한다' 이고 그 구비서류가 500명 이상의 추천서임.
  - >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회칙으로 얘기해드리면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 > 미충족 됐다 라고 공지가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됨.
  - > 그럼 투표를 하여 결정하겠음. '상세하게 기재하자' (500인이상의 유효인원이 안돼서): 1명, '미충족 돼서 무산이 됐다 정도만 기재하자': 다수
  - > 공고를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음.
- 중선관위 체제는 선거 끝날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중선관위 체제는 유지하겠음. 경품추첨도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학지처에 오투웹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혹시 이 내용 단과대에 공유를 해도 괜찮은지?
  - > 단운위에 공유를 해도 괜찮음. 초안을 작성해 드리겠음.
  - > 경품에 대해서도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품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의결에 효력은 없으나 다들 동의를 해주시면 경품 추첨을 하겠음.
  - > 단과대 자율이여서 단과대별로 같이 함께하는 단과대가 있고 따로 하는 단과대도 있어서 모호하다고 생각함.
  - > 단과대별로 비용을 지원해드리겠고 추첨을 할지말지는 단과대별로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 선본의 이의제기문에 대해서)

## 1번 항목

- 1번에 대해서는 반대인 입장임. 학생증을 받는 이유는 학번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대조하는 목적이므로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일단 예시나 명시가 없으면 안된다는게 기본이 안됐다고 생각함. 동명이인일 경우 어떻게 할지 모호해져서 해당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신경써야 될 것은 예시나 명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 학생증 인 증은 올바르게 기입했는지 확인하는 용이지 학생증에 학번이 나와 있으므로 두자릿수 학번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두 자릿수 학번이 기본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음. 공식적 서류에서의 학번은 8자리를 의미하는 것임. 두 자릿수 학번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음.

-> 서류제출할 때 예시가 없다고 이해를 못하는건 아님. 예시가 굳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서류 자체가 직관적인데 예시가 어떻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음.

-> 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학번의 경우에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러한 답변으로는 논리가 없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이야기를 논의해봐야 함. 개인적으로 예시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 21이라도 두자리 학번을 기입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함.

-> 학번이라는 것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처럼 제공하는 것이고 두 자릿수는 편하게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임.

-> 학번의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명시한 것이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맞음.

-> 사전에 학번 정의를 쳐봤는데 학교의 학생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다 라고 되어 있음. 일반적인 대학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인이 됐으니깐 이런 상태에서 예시를 안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 논의 통해서 조사해보고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하고 또 논의가 되면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음.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번의 정의와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동떨어진 것 같음.

-> 앞선 대표자들의 의견도 공감하지만 선본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추천인 서명을 받는 절차가 예비선본을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고 아니고 등록 전에 최소한의 요건 정도라고 생각함. 선거를 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학생 자치에 더 좋은 방향인만큼 예시가 있었으면 더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맞음. 사과대에서는 추천인 서명 링크를 확인 할 때 두 자릿수 학번이 인정이 돼서 정부가 논의를 했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로 확실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 혹시 pdf원본파일 자체가 예비선본에게 전달이 안된건지?

-> pdf 파일 자체를 선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음. 최종본을 전달하지 않았음. pdf파일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음.

-> 작년에 동연은 선거할 때 pdf 원본파일을 받았음.

->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못받았음. 이번 선본에서는 총 숫자만 보고 판단한 것임.

-> 의결을 했을 경우 의결 결과를 선본측에 전달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 의결이 필요한 것 같음.

-> '추천인 서명에 있어서 두 자릿수 학번 기입을 인정한다.' 정도로 의결명을 하면 되는지?

-> 학번 자체가 고유번호인데 추가적인 예시를 기입 안했다고 선관위의 잘못이라는게 굳이 그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사전적 의미가 고유번호라는데 뭘 더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음.

-> 학번의 은어적 표현은 인정하기 때문에 의결명에서 두 자릿수 학번 보다는 은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은지...

- > 전체 숫자를 쓰는 20, 21이라고 쓰는 500명이 넘어서 예비 선본의 등록의 진행이 가능한지?
- > 못넘는데 어차피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정도 논리체계는 갖춰야 할 것 같음.
- > 선본에게 답변을 보낼때는 중선관위는 이 의견으로 합쳐졌다 라고 하나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의결을 통해서 내용이 확정됐다고 보내줘야 더 이상 이의가 안나오겠음.

- 의결명가안: 추천인 서명 과정에서의 학번을 두 자리 숫자를 인정한다.

- > 작년에도 인정이 됐는지?
- > 전례도 인정이 안됨.
- > 선관위 차원에서 배려의 차원이지만 꼭 해야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됨. 예비 선본이 링크를 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 > 인정을 해도 인원수가 안돼서 성립이 안됨.
- > 의결을 진행을 해야할지? 의결명이 굉장히 중요함.
- > 학번 작성의 모호성을 인정한다 정도만 해서 모호함을 포함되는 20학번 이런것만 인정하면 안되는지?
- > 모호함이라는 단어가 어떤걸 불허도 다 인정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단어로 썼으면 좋겠음.
- > 오기입은 인정하면 안됨. 20학번, 21학번을 인정하면 무시하게 되는것이라서 아예 받아들이면 안됨.
- >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느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문제이긴 함.
- > 의결진행 찬?반?
- > 20, 21적는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학과 이름이나 이런건 잘못된건 인정 불가함.
- > 의결 자체만 말하자면 두 자리, 여덟 자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워딩이 있다면 의결의 명확성이 보장하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두 자리와 여덟 자리 말고 다르게 없다면 의결 진행 반대함.
- > 중선관위가 해야하는 일이 명확하게 어떤 규제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의결을 진행 하되 학번 두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워딩을 할지 논의가 필요함.

- 의결명 가안: 업로드 된 학생증에 기재된 고유학번 8자리에서 왼쪽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위치한 두자리 숫자를 적은 것을 인정한다.

- > 의결이 진행해서 인정이 된다면 다시 추천인 수 집계해야 함. 부결이 된다면 논거를 만들면 됨.
- > 자릿수만 학번으로 인정을 한다 어떠신지?
- > 위 의결이 부결이 되면 또 다른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음.
- > 이의제기가 저 두자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음.
- > 어떻게 해석이 되야 하나
- > 또 다른 컨텍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는걸로
- > 부결이 됐을 경우 추가로 어떤걸 인정할지 추후 논의.

- 의결명: 추천인 서명 과정에서의 학번은 학생증에 기재된 학번 8자리만 인정한다.

참석 단위 9단위, 찬성 8단위, 반대 1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됨.

- 학번 기재 문제는 논의를 해서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음.

- > 고유 학번이 8자리라는 것을 언급하면 될 것 같음.
- > 학생증 인증은 학번을 올바르게 기입했는지 확인하는 용이지 학생증에 학번이 나와 있으므로 두 자릿수 학번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두 자릿수 학번이 기본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음. 공식적 서류에서의 학번은 8자리를 의미하는 것임. 중앙대 학생이라면 그 누구나 개개인의 고유 번호인 학번을 제공받음. 두자릿수 학번은 중선관위 의결을 통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이 되지 않음.
- > 차라리 해당 이의제기문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드리되 추가로 인정을 해도 인원이 충족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음. 인정을 떠나서 엑셀 파일에서 학과(부)와 이름을 거꾸로 쓴 학우만 134

명인데 최소한의 정리이지 않을까 코멘트를 달고 싶음.

-> 학생증 사진에는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데 왜 또 기입을 해야 하는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

-> 확인 절차용이기 때문에 대리 수단은 아님.

-> 대리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용이기 때문에 대리 수단이 될 수 없음.

-> 전까지만 한번 보내고 같은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그때 저 코멘트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논점이 벗어날 수 있어서 첫 번째 보내는 것은 거절 이유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번에 대해서.

- 학과(부) 라고 썼거나 공란이면 인정을 안했음.

- 학과(부)명의 오기재는 학과(부)명의 공란과 학과(부)명 란에 학과(부)명이라고 기재된 경우를 무효 인원으로 산정. 말씀해주신 전공을 의미하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모두 유효인원으로 산정함.

3번에 대해서.

- 사진 첨부라는게 학생증을 말하는 것 같음.

-> 인정한 사례들이 학생증, e-advisor, 포탈 정보인데 세가지에 속하지 않은 사진이 있거나 미첨부한 경우만 제외를 하였음.

- 추천인 서류에 학생증 인증 관련된 예시('실물 학생증 사진', '포탈-내정보 수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름/학과(부)/학번'이 모두 나온 사진)를 기재해서 링크를 배포하였고, 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이미지의 경우 무효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다만, e-id도 유효 인원으로 판단하여 유효 인원으로 집계하였음.

-> 학번, 재학 증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하였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음.

4번에 대해서.

-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있었던 후보자 추천 창구가 무엇인지?

-> 이클래스를 말하는 것임.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했냐 라는 것임.

->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이니까 논의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음. 선관위가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건 맞으나 홍보 활동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처음 논의 시 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결을 통해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다만 논의 시 선본측에서 문의나 요구가 들어온다면 재의결을 통해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음.

- 예비선본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말을 하셨는지?

->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게 저희가 문의메일을 계속 열어둔 상태였고 그 메일을 통해서 계속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의시에 요청을 했으면 가능했을텐데 그걸 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뭐든 잡아서 추천을 더 받고싶다 이런 것 밖에 안보임.

- 선관위의 경우, 선본의 후보자 추천 링크 배포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과(부) 공지방 공유는 부결되었음. '이클래스'등과 같은 창구 개설의 방법을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예비선본에게 제시하는 것은 예비 선본의 홍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뿐만 아니라 창구 개설의 경우 이클래스, SNS 등 홍보 가능한 범위가 크고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예비 선본이 '이클래스'등과 같은 창구 개설을 요청한다면 중선관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중선관위의 합의가 있었음. 또한 중선관위의 메일을 통해 홍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학과(부) 공지방 공유 외에는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으며,

예비 선본의 충분한 의견 제시가 가능했다 라고 판단함.

-> 창구 개설은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였다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음.

5번에 대해서.

- 재선거에 대한 내용이 회칙에 없음.

-> 재선거에 대한 내용은 투표율이 안됨을 경우 투표율에 관한 내용만 있음.

-> 그런데 재선거같은 경우 이미 선거에 참가할 요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안됨이었을 때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인을 안됨을 사람을 재선거 자체가...

-> 이걸 후보자 등록에 실패한 것 뿐임. 후보자 등록에 실패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그냥 후보자 등록에 실패한 것인데 재선거가 왜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그냥 후보자 등록이 안된 것임.

- 총학생회 회칙 62조 보궐선거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 선거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15,16년 비대위일때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 그런데 보궐선거는 보통 3월에 진행을 하고 그게 학생자치에서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음. 다른 단과대도 3월달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 적이 있음.

-> 사과대는 12월에 한번 진행을 하긴 함.

-> 동연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3월로 미뤘음.

-> 회칙대로 하면 잔여임기를 지금부터 카운팅을 하면 이 일정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회칙에는 임기가 12월 1일부터니까 12월 1일로 하면 다음대가 하는게 맞는데 그래서 이 회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음.

-> 사퇴나 탄핵이나 이런걸로 공석이 되었을 때 일인데 지금 회장님이 계심.

-> 그래서 3월달에 보궐선거를 하는게 아닌지? 12월 1일부터 100일 잡게 되면 3월달이라 그래서 굳이 논의할게 아님.

-> 보궐선거는 63대에서 판단할게 아님.

-> 재선거만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궐선거를 말하는게 맞는지? 재선거에 관해서만 답변하면 될 것 같음.

->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12월 1일 새로운 중운위가 출범하면 논의될 것이라고 하고 저희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음.

- 재선거의 경우, 회칙상 투표율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고, 이번 사례와 같이 후보자 등록 실패로 인한 선거 무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칙상 보궐 선거는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총학생회장이 현재 재임 중에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보궐 선거는 64대 중앙운영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

## 2. 중앙감사위원장 면접

- 첨부 자료 참고

### 1. 지원자 강예은

- 소개: 경영학부 20학번으로 재학중. 중감위 위원장을 지원하면서 두가지의 지원동기가 있음. 학생회에 소속된 적이 없었지만 학우로서 학교의 여러 소식을 들으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비합리적 운용을 하였던 소수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다수의 학생회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이었음. 공정하게 감사 절차에 참가하는게 중요하지만 투명성을 재고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함. 학생회는 아니지만 동아리에서 외부 단체에서 회계일을 하면서 배워왔고 익혀왔던 것을 중감위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됨.

- 중감위가 운영될 때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 큰 문제점은 아직 생긴지 얼마 안됐음.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 체계에 구성원들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음. 중감위원장으로 가장 목표하는건 체계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튼구름을 잡는게 아니라 위원 한명한명이 동의하고 일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극복하고 싶은 단점임.
- 중감위원회가 피감사대상에게 징계를 내리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제가 더 익혀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면 필요함.
- 현재 중감위 회칙에서 징계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 읽었을 때는 권한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어떤 구체적인 디렉션을 제시하는것보다 편성이나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말하는 정도로 이해했음.
- 중감위원장은 피감사대상으로부터 임명이 돼서 수행한다. 위원장께서 직선제를 구성한 학생회에 징계를 내리는게 적절한지?  
-> 학생회와 중감위원회가 우열관계나 대적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함. 공통된 바는 이 학교를 사랑하고 이 학교에 있어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기분이 아니라 함께 가고있구나를 느끼게 하는게 공통된 동의라 생각함. 중앙감사위원회 예산 감사과정이라던지 소명을 밝혀 달라는 과정에서 비공정성이나 동의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명 절차를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중감위에 큰 문제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체계를 지적해주셨음. 이 체계를 공감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했는데 중감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음. 전체적으로 이 중감위를 생각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확인했을 때 일이 몰리고 왜 그만두냐 라는 이야기를 봤음. 어쩌면 편협된 입장일 수 있지만 저는 중감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떤 큰 임무를 만나면 왜 이걸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지 동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음. 구체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한 것이기 보다는 시스템들이 위원 한분한분이 동의하고 이해했는지는 물음표인지 몰라서 말씀드림.
- 혹시 본인이 중감위원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처리해야될 문제는?  
->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하고 싶음. 입학한 후에 밴드동아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은 하지만 영수증만 처리하고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파악할 수 없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영수증이고 엑셀이구나 하면 일만 했음.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목표하는 바를 이해하고 잘못한게 있으면 원지 물어보고 싶음. 비대면으로 업무할 수 있고 전자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영역속에서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우선할 것 같음.
- 생각하시는 바가 중감위랑 학생회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결이라는건 갖고 있는 목적이나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여쭙보는 것임.  
-> 제도적으로는 독립적인게 맞음. 감사 대상과 결속하거나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친해지는건 일어나면 안되고 가장 큰 목표에 있어서는 결이 같음.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자료를 감사하고 잘못된 경우에 잘못을 제기하고 하는게 결이 다르고 결이 같다고 생각함. 서로 믿고 자료를 맡기고 결산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함.
-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중감위 회칙은?  
->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 답변이 가능하신지?

-> 지금은 답변을 못드릴 것 같음. 시간이 필요함.

- 추가질의 없으신걸로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람.

-> 학생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집행하는지 결산을 집행하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은 자신일 것 같음. 그렇지만 해보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더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회칙대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고 중감위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군림하는게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싶단 자세로 리더가 되고 싶음.

## 2. 박수빈 지원자

- 소개: 수학과 3학년 박수빈. 저는 진로를 정하고 회계 등의 경제 공부를 하면서 회계처리만큼이나 감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금융 감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음. 이에 감사원 실무를 경험해보고싶어 찾아보다가 해당 모집공고를 발견하였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하고싶은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뜻깊게 다가와 지원하게 되었음.

- 2년동안 운영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 어떤식으로 잘 운영이 안됐는지는 알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중감위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음.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중감위를 볼 수 있는 것은 몇차례 없었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한적이 없음.

- 회칙을 읽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음.

- 중감위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회칙에도 만족스럽다고 하셨는데 장점이나 단점을 한가지씩 말씀해주실 수 있는 지?

-> 중감위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반학생 입장에서 느끼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중감위 업무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학생들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단점이었음. 중감위가 자치를 감사하는 기관인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음. 중감위가 SNS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가까워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 문제점을 생각한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생각하는 중감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 학생자치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비용들을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는지는 않는지 감사하고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함.

- 그렇다면 비용 자체가 학생회비인데 과방이나 그런 비품같은게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는 지?

-> 당연히 그런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저희는 그 비용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 것인지 안좋은 쪽으로 쓰인 것인지 확인하는 기관이므로 감사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음.

->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비용인지 예시를 하나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비용을 남겨서 빼돌린다거나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어서 비용을 철저히 기재해 주신다면 발생하지 않음.

- 추가질의 없으신걸로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람.

-> 처음에는 중감위를 지원할 때 금융감독원 스펙을 목적으로 지원을 했으나 중감위 회칙이나 이런것도 찾아보고 SNS도 찾아보면서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음. 꼭 붙어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음.



- 양자택일 말고 첫 번째 강예은 학우님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고 부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박수빈 학우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 가결이 되면 다른 분은 안하는건지?

-> 자동적으로 안하는 것임. 항상 편의성을 위해 양자택일을 했는데 사실 의결을 진행할 때 공식적인 절차는 첫 번째를 의결을 진행하고 부결이 되면 그 뒤에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임.

-> 양자택일에 반대인게 둘 다 싫으면 기권하는게 나은지?

-> 저번에는 기권 넣었다.

> 현 중감위 회칙상 중감위원장이 공석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꼭 한명을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석으로 뒀도 되는지?

-> 가능하면 새로운 위원장을 뽑는게 나을 것 같음. 3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선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첫 번째 지원자가 당황스러웠던게 질문을 했을 때 결속력을 다지고 싶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먼저 나오는지 의아했음. 중운위든 알아나가겠다고 먼저 나오는게 맞는데 결속력이 나와서 그 후에는 깊게 못들었음.

-> 해당 답변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고 결속력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말한게 본인만 업무를 정확하게 알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 모두가 이해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함. 다만 회칙 개정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고 학생자치에 대해서 실무적인건 없어서 불안하지만 현재로는 두분 가운데서는 회칙에 대한 내용이나 정확하게 원하는 중감위에 대한 역할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두분중에서는 앞분이..나온 것 같음.

-> 준비성을 봤는데 그래도 질의나 답변이나 준비성을 봤을때는 첫 번째 학우분을 긍정적으로 봤고 책임감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처음 회장을 맡을 때 실무감은 없었음. 하지만 의지가 있고 공부를 하실 의지가 있는걸 보고 책임감 측면에서 준비할 자세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첫 번째 학우분이 더 긍정적임.

-> 두 번째분은 중앙감사위원회 라는 이름만 보고 지원을 한 것 같고 첫 번째분은 실무경험이 부족한건 맞지만 본인이 찾아보고 온게 있고 답변도 그만큼 하셨으니 저도 두 번째분 보다는 첫 번째분이 낫다고 생각함.

- 강예은 학우님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가결이 되면 박수빈 학우님에 대한 의결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 둘다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 공석인 것임.

-> 저번에 중감위 면접 봤을때 어떤 학우님께서 의결을 왜 양자택일과 기권의결로 해서 기권을 많이 해서 무산시켰는지 말이 나왔는데 그때 중운위가 답변할 때 그 의결 방식이 잘못됐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의결이 이래서 진행했고 옳은 방식이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함. 그런데 지금 의결 방법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저희의 논리에 모순이 될 것 같아서 의결을 그때와 동일하게 진행하는게 맞을 것 같음. 괜히 의결명을 바꿔서 논란이 될까 걱정이 됨.

- 의결명: 3대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000학우로 선발한다.

1번: 강예은

2번: 박수빈

참석 단위 9단위, 1번 9단위, 2번 0단위로 3대 중앙감사위원장은 강예은 학우님으로 선발하겠음.

### 3. 예산자치제 추가 자료

#### - 검토 및 논의

##### 1. 매치포인트

\* 활동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반려됨.

- 798,000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신청 금액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이용할만한 금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한 전례가 있어서 의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결 진행하겠음.

- **의결명: '매치포인트' 동아리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792,000원을 지원한다**

**참석단위 9단위, 찬성 9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됨.**

##### 2. 아마농구청롱

- **의결명: '아마농구 청롱' 동아리에 예산자치제 금액을 지원한다.**

**참석단위 9단위, 찬성 9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로 가결됨.**

##### 3. 소름

- 신청 금액에 대한 세부 예산 요청을 해야하고 소모품은 지원 불가함.

- 운송비용 등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스포츠 동아리의 경우도 장비를 운송하는 경우가 많음. 운송비를 모두 인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음.

- '렌트'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음. 그린카나 소카 이용 금액이라 예상되므로 운송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

- 대여품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인정을 하고 반납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업체에 반납이 안된 내역이라면 예산자치제의 금액에서 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임.

- 주요 대여 물품은 촬영 장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제하고 지원해주자.

- 신청 금액 500,000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의결이 어려울 것 같음.

-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필요함. 의결은 다음에 진행해야할 것 같음.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지만 소름만 미제출 상태이므로 자료 구비에 대한 요청을 강조했으면 좋겠음.

- 소모품 및 간식비의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합의가 존재했음. 운송비 또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 대여품은 명확한 반납 근거 및 증빙 자료 존재 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동아리에 귀속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5 기타안건

### 질의응답 및 추가안건 상정

-답변을 보내고 선본이 인지할 시간을 주고 공고를 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내일 아침에 공고하는게 좋을 것 같음.

- 수정을 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음.

- 따로 선거를 진행하셔도 기본적으로 23, 24일은 투표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맞춰주시길 바람.

- 개표시간은 보통 10시 30분이고 확정 아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